

남원 가야 유적, 사적으로 지정된다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삼국시대 조성 기술 보존
문화재청 첫 행정조치

남원시 인월면 유곡리와 아영면 두락리 일대 가야·백제 무덤들이 사적으로 지정된다. 호남에서는 처음으로 가야 유적이 사적으로 지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2일 남원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리산 줄기인 연비산에 모여 있는 고대 고분 40여 기를 묶은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가야사 문화권 조사·정비를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후 처음으로,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방치돼 있던 남원·장수 지역 가야 혹은 가야계 고분에 대한 문화재청의 사실상 첫 행정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남원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영남 지역에 비해 저조했던 호남의 가야유적 조사와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은 완만한 능선을 따라 고분이 있다. 40기 중 12기는 지름 20m가 넘는 대형 고분이다.

지난 1989년과 2013년에 진행된 발굴조사에서는 가야계 수혈식 석곽묘(竪穴式石槨墓·구덩식 돌덧널무덤)와 백제계 횡혈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일대. 고분군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를 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식 석실분(橫穴式石室墳·굴식 돌방무덤)이 확인됐다.

특히 32호분으로 명명된 무덤은 석곽의 크기가 길이 7.3m, 너비 1.3m, 깊이 1.8m로 조사됐다. 백제 왕릉급 무덤에서 나오는 청동거울이 무덤 주인공의 머리 주변에서 발견됐고 금동신발 조각도 출토됐다. 이외에도 철기류 210여 점과 토기류 110여 점이 나왔다.

또 봉분을 견고히 하기 위해 성질이 다른 흙을 번갈아가며 판축기법(흙을 얇은

판 모양으로 켜켜이 다져 올리는 방법)으로 쌓고, 석곽을 축조할 때 나무기둥을 이용하는 등 삼국시대 무덤 조성 기술이 잘 남아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원시는 이들 고분군의 경우 5~6세기 경 남원 운봉고원에 존재했던 가야와 백제, 주변 세력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사적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고분군서 출토된 유물들.



익산시 이색 정책 홍보 시스템 눈길

학원가·시청·익산역 등서
가로등 활용 '힐링' 메시지
"시민 의견 적극 수렴키로"

익산시가 최근 정책 홍보를 위해 가로등 조명을 활용,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그림자 조명'<사진>이라는 홍보시스템을 도입해 정책 홍보와 주민들을 위한 '힐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그림자 조명'은 조명과 그림자 기법을 적용한 픽토그램(그림문자)을 다양한 색감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픽토그램을 가로등에 부착한 뒤 이를 지면에 투사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어두운 밤길, 조명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희망의 '힐링' 메시지, 정책 홍보 문구 등이 함께 켜진다는 점에서 참신하다는 반

응도 적지 않다.

익산시는 영등동 학원가, 시청 사거리, 익산역, 원대병원 맞은편 버스정류장, 원광여고, 영등동 사거리, 중앙체육공원 내부광장 등 11개소에 그림자 조명 시스템을 도입, 운영중이다.

예를 들면 영등동 사거리의 경우 '당신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응원합니다.', 중앙체육공원 내부광장에서는 '힘을 내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할거예요' 등 장소별로 다른 문구와 이미지를 적용,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그림자 조명을 시 전역으로 확대해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익산=유정영기자 yij@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군산시 평생학습관

내달 초 수강생 모집

군산시 평생학습관은 오는 2월 1일부터 9일까지 '2018년 정규 프로그램' 72개 강좌 수강생 13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강좌는 오는 2월 19일부터 5월 12일까지 12주간 운영되는 66개 강좌와 만 6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월 19일부터 7월 7일까지 20주간 운영되는 6개 강좌로 나뉜다.

만 65세 이상 시니어 강좌의 경우 치매 예방 관련 강좌를 포함, 3개 강좌를 새로 개설하고 기존 12주 학습기간을 20주로 확대했다.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1인당 2강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수강료는 3만원으로, 문의는 평생학습관(063-454-5960~5)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백성기기자 nogusu@

정읍사를 지역 대표 관광지로

가요박물관·체험관 등
관광 인프라 구축 순항

내년이면 정읍사 관광지가 대표적 지역 관광 명소로 떠오를 전망이다. 22일 정읍시에 따르면 백제가요 정읍사를 테마로 한 정읍사 관광지 조성 사업이 지난 2016년 착공,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시는 내년 3월이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으로, 정읍사 관광지는 신정동 정해마을을 중심으로 21만5808㎡ 부지에 314억원을 투입, 내장산 국립공원과 내장산리조트를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존하는 최고의 백제가요인 정읍사 설화와 정해마을에 위치한 새암유물, 부부나무 등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가요 박물관과 한식 체험관, 저잣거리, 정읍사 여인집 등을 조성하고 야외정원, 자연생태연못 등을 만들어



대표적 관광지로 만든다는 게 정읍사 구상이다.

특히 가요 박물관(연면적 1517㎡)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궁중음악인 수제천의 우수성과 가치를 소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정읍사(井邑詠)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 가요 발생지로서의 '정읍'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백성기기자 전북취재본부장

군산시 오식도 공업용수 배수지 확장

지난해 착공 공정률 70%

새만금산단내 원활한 공급

군산시는 22일 새만금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원활한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오식도에 배수지를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2015년부터 새만금산업단지 전용의 공업용수관(2.56km)을 설치해 도레이, 솔베이, OCISE 등에 하루 1만2000t의

공업용수를 공급하지만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2016년 8월부터 하루 3만 2000t을 공급할 배수지를 짓고 있으며, 현재 70%가량의 공정률을 보인다.

시는 올 하반기 배수지를 가동해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배수지를 시험 가동한 후 본격적으로 공업용수를 추가 공급해 새만금산단내 입주기업 생산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백성기기자 nogusu@

남원장학숙 입사생 이달말까지 모집

남원시가 운영하는 남원장학숙(사

진) 입사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35명으로, 오는 3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수도권에 있는 2년제 이상의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거나 올해 입학하는 학생으로 부모나 본인 중 한 명이

상이 1년 이상 남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입사비 7만원과 월 15만원만 내면 숙식을 해결할 수 있다.

남원장학숙은 지난 2014년 서울 보문동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식당, 독서실, 체력단련실 등을 갖



했다. 문의는 남원시(063-620-5603)로 하면 된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증흥삼거리 부근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